

## 한일사회문화포럼 후기-윤석만 / 수원대학교(경제학과)

저는 19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한일미래포럼에 참여했던 참가자 수원대학교 학생 윤석만 입니다. 우연히 에브리타임에 나와 있던 한일 포럼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던 것이 이렇게 행복했던 여행으로 남게 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의 일정은 13일 아침에 요나고로 간 후 Sun lake라는 연수시설에서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일본인 친구들과의 교류, 요나고 주변의 시설을 구경 하고 가장 중요한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과 각자의 생각을 듣는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만 해도 긴장 반, 설렘 반 이었습니다. 하필 여행을 가려고 하는 시기가 한일관계가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3일 출발할 때 한국 기사의 대부분이 일본에 대해 우대국가 제외속보였습니다) 혹시나 여행 중에 한국을 싫어하는 분들의 위해 나, 일본 친구들의 안좋은 마음을 어떻게 대해 줘야 할지 걱정도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고 일본 친구들과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았고 미디어에서 보았던 관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과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의 한일관계에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보니 한국인 으로 써도 일본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고 일본인 친구들도 저와 다른 한국인 친구들의 의견이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번째 날에 필드워크 시간으로 요나고 시내에 나갈만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날이 덥고 습도가 많았지만 이번 자유시간에는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일본인 친구들과 직접 얘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신사에는 처음에 가봤는데 한국의 절에 가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5엔을 집어넣고 합장을 하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을 일본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다 같이 넣고 이번 여행이 행복하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원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엔과 50엔의 말소리가 행복(?)을 부르는 뜻의 글자와 같은 소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의외로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108배라는 뜻을 일본인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 뜻과 유래를 알려주니 신기한 눈으로 바라 보는게 같은 불교를 믿는 국가여도 중요하다 생각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동과 습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일본은 예절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정말 철저함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면서 대단함과 부러움 역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의외로 놀라운 것은 일본친구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놀러와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해서 실력에 상관없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고 한국에서 3년간 특파원 생활을 했던 아사히 기자님의 언어 실력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한국 신문을 꾸준히 정독하셨다고 하였고 동시 통역수준의 얘기를 들어보니 양국민 모두

서로를 알기 위해 정말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슬펐던 것은 일본 언론의 많은 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장단점을 골고루 보여주지 보다는 단점만을 많이 부각하고 좋은 점은 거의 보여주지 않아 같이 토론했던 일본 친구도 저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기자님도 요즘 관계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일본에 오는 것을 우려했지 않느냐는 말을 해주셨을 때 이럴 때 일수록 더욱 많은 교류가 해결의 도움이 될 거 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생각보다 놀라워 하시는 것을 보고 한국의 장점 역시 일본에서 많이 알려주고 '공존'하는 상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어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아 문장을 쓸 때 상대적으로 한 문장 문장마다 짧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반점(.)이 없으면 깔끔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통수단이나 자동차 버스를 타면서 왼쪽으로 운행하고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는 점, 버스 계단 아래 작은 난간을 하나 더 만들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배려 하는 점, 전차를 타는 것이 아직 수동적인 모습(종이로 된 티켓을 사용하는 모습), 전차와 지하철이 공존하는 일본의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모습이 조합되어 나온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차이를 느끼고 갑니다. 또 고기를 먹을 때 한국에는 마늘이 있는데 일본에는 피망을 올리는 작은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더 일본에 있지 못하고 돌아 가는게 후회가 될 정도로 즐거운 여행이었던 거 같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한다면 꼭 시간을 내서 참가하고 싶고 이 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어 공부에 대해서 그동안 가지기 힘들었던 동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같이 고생했던 한국인 친구, 룸메이트, 저의 마니또, 다른 사회자분들과 통역 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웠다는 얘기를 이 글을 통해서나마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힘내서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고, 아니어도 추억 속에서 가끔이나마 이 여행의 즐거움을 다시 생각 할 수 있다면 정말 만족할만한 여행이었다고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고마웠습니다!!





